

##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금미<sup>†</sup> · 한덕용 · 한영석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집단간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가설들을 설정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녀간의 집단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지위, 합법성, 및 안정성의 인식이 성별사회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위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남자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들을 검증하고 공변량구조분석으로 모형의 부합도를 알아보았다. 최종 모형의 전반적 부합지수는 대부분 .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 합법성,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으나, 남성으로서 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수준은 낮았다. 또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사회정체성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아울러 장래 연구의 과제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남성지위, 안정성, 합법성, 사회정체성이론, 성별사회정체성, 양성평등 행동의도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집단간 관계에서 지위가 높은 남성들이 남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행동의도를 어떤 조건에서 보이는지 알아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이 성별관계에서 지니는 사회적 지위, 지위가 확립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합법성, 및 장차 성별에 따른 지위관계의 불변성을 의미하는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정체성이론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공변량구조모형에 따라서 성별사회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구조요인들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모형

을 검증하려고 한다.

한국문화에서 역사의 전개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시점까지도 남녀에 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혹은 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 한덕용과 공동연구자들(한덕용, 1994; 한덕용·강혜자, 2000; 한덕용, 2002)의 연구에서도 남녀간의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여성의 성역할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이 몇 편 발표되었다(예 : 김득란, 1992; 정진경, 1990). 이 연구들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개인으로서 지니는 성

<sup>†</sup> 교신저자 : 김금미(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imttokki@hanmail.net)

역할 지각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즉, 개인마다 남성이나 여성의 전형이 되는 성격특성이나 인지 반응을 어느 정도 지니는지 개인차로서 측정하고, 여성성, 남성성 혹은 양성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이나 여러 후속 행동 및 결과들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인차의 관점을 취하면 여성이 남성과 집단간 관계에서 여성이나 남성 전체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경험하는 집합적인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김금미·한덕웅, 2001).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인간이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통해서 자기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이 이론에 관한 국내 연구의 소개와 비판적 논의는 한덕웅, 2002 참조; Karasawa, 1991; Tajfel, 1982). 따라서 사람들은 긍정적 자기 평가를 선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하려고 한다. 이 때 개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동일시하는 집단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지위가 자기 평가의 주된 근원이 된다(Mummendey, Kessler, Klink & Mielke, 1999a).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집단 소속 의식과 집단간 관계를 집합적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변화시키는 조건을 알아내려고 한다(Taylor, & Moghaddam, 1987, 59쪽).

국외에서 집단이 당면한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낮은 지위 혹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일부 있지만, 높은 지위 혹은 사회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의 연구를 예로 들면, 남녀의 양성평등 행동의도는 양성평등 결과에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남성(김금미, 2001)의 양성평등행동이 양성평등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에서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체성이론은 (a)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

람들을 사회 집단의 성원으로 정의하고, (b)이에 근거하여 그 (집단) 특성들이 소속 집단 성원들에게 공유된다고 생각하며, (c)이 특징들은 다른 집단의 특징들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비교된다는 기본 과정을 제시한다(Ellemers, 1993). 이에 따라,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자기 개념의 일부로서 인간이 가치를 부여한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획득하려는 욕망을 지닌다고 가정한다(한덕웅, 1995). 이 가정으로 보면 남녀관계에서 남녀가 집단으로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행동을 설명하는데 사회정체성이론이 유용하다.

이 이론에서는 개인이 속한 집단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손상되어서 부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본다. Tajfel과 Turner(1986)는 이 조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사회정체성의 관리전략을 다음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개인행동 전략에 해당하는 '사회적 이동'은 지위가 높은 집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전략이다. 개인인지 전략에 해당하는 '개인화'전략은 개인정체성의 차원에서 정적 자기 평가를 얻고자 할 때 나타난다. 집합행동 전략인 '사회적 경쟁' 전략은 소속 집단의 상대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집합인지 전략인 '사회적 창조' 전략은 소속 집단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집단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외집단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를 일컫는다.

또한 내집단이 부정적 사회정체성을 지니는 상황에서 사회정체성의 관리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Lalonde와 Silverman(1994)의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으로 개인이 이동하는 침투가능성(permeability)과 특출성에 따라서 상황도피, 상황 수용, 재평가 요구, 집단항의 가운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특출하면 다른 전략보다 집단항의가 더 나타났다. Jackson, Sullivan, Harnish, 및 Hodge(1996)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지위가 낮아서 부정적 사회정체성이 높으나 개인이 다른 집단으로 개인이 이동할 수 있으면 개인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이동이 사용되고, 불가능하면 집합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창조전략을 사용함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들로부터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관계처럼 남녀의

물리적 침투가 용이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사회적 창조전략이나 집단 항의 같은 집합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은,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려는 전략이므로 Tajfel과 Turner(1986)의 분류에 따르면, '사회적 경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보다 지위가 높은 남성의 입장에서 이와 일관되게 보면,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덜 나타날수록 남성들의 사회적 경쟁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Ellemers, Spears, 및 Doosje(1997)의 연구에서는 집단몰입과 개인적 이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으로서 내집단범주화 요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 낮을 때보다 사회정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부정적 사회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적 경쟁전략을 더 사용한다는 가설을 설정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경쟁 전략 가운데 사회적 경쟁을 다루는데, Blanz, Mummendey, Mielke, 및 Klink(1998)에 따르면 이 전략은 집합행동전략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회정체성을 높게 지닐수록 집단간 경쟁전략을 더 사용하리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다루므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높은 집단 지위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성평등 행동의도는 더욱 낮아진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으면 양성평등 행동이 더욱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남성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해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저해하는 양성평등 행동의도는 낮아진다고 보았다.

다음에는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가운데 지위, 합법성, 안정성에 따라서 양성평등 행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해 보기로 한다.

#### 집단의 지위가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Tajfel과 Turner(1986, 19쪽)는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집단간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집단의 지위를 평가차원에서 비교한 집단의 상대적 위치라고 정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집단

간 관계에서 내집단에 유리하도록 지위의 차이를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내집단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단간 차별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집단의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집단의 지위가 낮으면 외집단과 비교에서 자존심을 손상 받기 때문에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라서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체성 관리 전략들을 연구하면서 대부분 저지위 집단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루었다(Ellemers, Spears, & Doosje, 1997; Mummendey et al., 1999a; Mummendey, Klink, Mielke, Wenzel, & Blanz, 1999b; Mummendey, Mielke, Wenzel, & Kanning, 1996). 이 연구들에서는 저지위 집단에 속한 구성원은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집단편애를 보이는 현상이 자주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내집단의 낮은 지위로 인해서 동일시 수준이 낮아져서 집합행동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Ellemers 등(1999)은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원들이 보이는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평가요소와 정서요소를 구분하고, 집단의 상대적 지위가 동일시의 평가요소에만 영향을 미치고 정서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미 높은 지위를 획득한 집단 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인해 자존심이 고양되므로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높은 지위의 집단 성원들은 낮은 지위의 집단 성원들과 다른 사회정체성 관리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단의 좋은 지위 관계가 안정적이고 침투불가능한 경우보다 불안정적이고 침투가능하면 사회정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집단의 소속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보면 높은 지위에 속하는 성원이 사회정체성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체성의 관리 전략을 사용하는지 연구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저지위 집단과 고지위 집단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사회정체성의 관리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서 고지위 집단이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 고지위 집단의 사회정체성 유지전략을 다루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를 살펴본다. Ellemers, Doosje, Van Knippenberg 및 Wilke(1992)의 연구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내집단편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집단의 상대적 규모, 지위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의 효과를 알아본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집단간 경계가 모호하여 집단간 침투가 가능하면 높은 지위 소수 집단의 성원들이 다른 집단의 성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내집단편애를 보였다. 또한 Mullen, Brown 및 Smith(1992)의 통합분석(meta analysis) 결과와 Sachdev와 Bourhis(1987, 1991), 그리고 Ellemers 등(1999)의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높은 지위의 집단 성원이 낮은 지위의 집단 성원보다 내집단편애를 더 많이 보였다.

또한 Reichl(1997)의 연구에서는 지위와 상관이 있는 차원에서 내집단 편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높은 지위의 집단 구성원들은 지위와 관련 있는 차원보다 관련이 없는 차원에서 내집단 편애를 덜 보였다. 그는 고지위 집단이 이미 보장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위에 관련된 차원에서는 우세함을 확인하지만, 전체적으로 높은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위에 관련되지 않은 덜 중요한 차원에서는 저지위 집단이 상대적 우세성을 주장하도록 묵인한다고 보았다.

사회정체성이론의 가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한 결과들을 정리해보자. 집단간 관계에서 높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존심의 향상으로 인하여 긍정적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되는데, 이 때 내집단의 사회정체성을 더욱 우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낮은 지위의 외집단을 차별하려고 한다. 만약 외집단에 차별행동을 보이는 상황이 합법성을 지닌다면 외집단 차별을 정당화하고 더 차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낮아질 수 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집단간 관계에서 높은 지위에 처한 집단의 성원은 이미 외집단보다 우월하게 집단간 지위의 차이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고지위 집단의 성원이 외집단에 대해서 집단간 차별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김금미·한덕용, 2002ab). 만약 집단간 관계에서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나은 지위에 처해 있으면서 이 집단간 지위의 차이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가정할 수 있다(Ellemers, 1993). 따라서 집단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위에 따른 두 방향의 가설을 볼 때 남성의 지위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에 의해서 조절되어서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의 두 요인들이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남성의 지위가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집단의 지위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 집단 지위의 합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현재의 집단간 지위 관계가 합법적이라고 동의하게 되면 고지위 집단과 저지위 집단들이 서로 비교하지 않으리라고 제안한다(Ellemers, 1993). 다시 말해서 지위의 차이가 합법적이라면 열등한 지위에 처한 집단은 지배적 지위를 지닌 집단으로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독특해지려고 시도하지 않지만, 집단간 지위의 차이가 합법성이 없으면 지위가 낮은 집단은 높은 지위 집단을 집단간 비교의 표적으로 볼 수 있다. Ellemers(1993)는 이 가정에 따라서 합법성과 안정성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고 비합법적이면 집단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였다(Ellemers, 1993).

이에 일관되게 Mummendey 등의 연구들에서는 지위 관계의 합법성과 관련해서 합법적이라고 지각되면 집합 전략을 취하지 않고 개인적 대처전략을 채택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연구 들에서 얻은 결과를 보면 합법성이 집단의 이동전략과 정적으로 유의하고 개인화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얻어서(Mummendey et al., 1996)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Ellemers 등의 연구(1993)에서, 집단 지위의 합법성과 안정성 및 침투가능성을 조작했을 때(연구 1), 집단 지위가 향상될 수 있고(불안정), 집단을 떠날 수 없는 조건에서(침투 불가능) 집단에 대하여 강한 정체화 현상

을 보였다. 또한 집단 지위가 안정될 때보다 불안정될 때 합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낮은 지위 집단 성원이 경쟁적 행동을 더 보였다. 즉, 지위 구조가 불안정하여 집합적 지위 향상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 때, 비합법적·저지위 성원의 지위 향상 동기가 행동으로 표출되었다. 반면 안정성과 침투가능성과 함께 개인이 낮은 지위의 집단에 비합법적으로 소속되면 합법적으로 낮은 지위에 소속된 경우보다 내집단 정체화 수준이 낮고, 심지어 낮은 지위 집단의 멤버십을 포기하려 하였다(연구 2). 이 연구 결과는 집단의 지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합법성의 지각 수준에 따라서 사회정체성에 서로 달리 영향을 미치는 시사한다.

한편 여러 조사연구들에서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설과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Mummendey 등(1996)의 연구에서는 합법적인 집단이 낮은 지위일 때 개인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예견하였으나 결과에서 부분적 지지만을 얻는데 그쳤다. Mummendey 등(1999b)의 연구에서는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지각할 때 개인적 전략과 사회적 창의성 전략을 사용하지만 비합법적일 때는 내집단 동일시와 사회적 경쟁전략을 사용한다고 예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합법성이 높은 조건에서 개인적 이동전략을 더 사용하였고 비합법적일 때 사회적 경쟁 전략을 더 사용하였다.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정체성이론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Mummendey 등(1996)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집단동일시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하지 않았고, 결과에서도 이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Mummendey 등(1999b)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내집단 동일시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가정했으나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또 Mummendey 등(1999a)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정체성의 관리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내집단동일시가 매개한다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사회정체성모형의 검증 및 상대박탈이론과 통합한 모형의 검증에서도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제시한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증연구에

서 일관되게 지지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합법성이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근거를 다시 정리해 보자.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현재 처한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남성범주에 동일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이 경우에 자기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한덕웅, 2002; Karasawa, 1991; Tajfel, 1982).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가 좋은 남성의 경우에 집단의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사회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 명제를 집단 지위의 합법성 지각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로 설정하였다.

#### 집단 지위의 안정성에 따른 성별사회정체성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집단간 관계가 안정적이라면 현재와 다른 지위구조가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집단간 관계가 불안정하면 대안의 지위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된다(Ellermers, 1993). Mummendey 등(1996)의 연구에서는 집단간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집단 지위가 변화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집단간 지위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전략이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집단간 지위관계가 안정되면 개인전략을 쓰게 되어서, 고지위 집단에 가입하여 개인의 신분 이동을 시도하거나 인지적으로 자기개념을 재해석하게 된다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 안정성의 효과는 개인이동, 사회비교, 새로운 집단, 새로운 비교차원, 재평가를 포함해서 여러 사회정체성 관리전략들에 전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개인화전략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동독인들이 '지위의 안정성'에 관하여 상황이 개선된다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Mummendey 등(1999b)의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내집단 동일시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경쟁과 같은 집합전략의 사용을 촉진시키며, 불안정성은 내집단 동일시를 약화시키고 개인적 이동과 같은 개인전략을 촉진시키는 직접 경로들을 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안정성은 내집단동일시에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이고, 상위범주화와 개인적 이동에는 부적인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Mummendey 등(1999b)의 연구 2에서는 안정성 변인이 동일시에 유의한 경로계수를 보였고, 개인적 이동과 부적으로 유의하고, 실제적 경쟁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도 안정성에 관련한 가설들은 일관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즉, 선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을 다른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집단간 관계에서 지지위에 처한 집단과 달리 고지위 집단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행 연구들에서 측정의 일관성 문제를 유발시킨 종속측정치의 문항에 유의하여 안정성이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음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현재 지위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지각하면 자신이 속한 남성집단에 동일시하여 자기평가를 유지시키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남성은 자신의 지위가 안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 수준이 높을 것이다.

집단 지위, 지위의 합법성, 안정성에 따른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공변량구조모형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사회정체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로서 집단간 비교 상황의 특출성, 집단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지위의 차이, 집단간 상대적 지위의 안정성, 합법성 및 집단간 경계의 침투가능성

등 이른바 사회구조 요인들이 사회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한덕용, 2002). 또한 남녀관계에서 성별사회정체성에 선행하는 사회구조 변인들-안정성, 합법성 등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김금미·한덕용, 2001).

Ellemers(1993)는 정적사회정체성의 획득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변인들로 집단 경계의 침투가능성, 집단의 지위, 대안적 집단 멤버십, 안정성, 합법성 등을 지적하였고, 동료학자들과 공동으로 이 요인들의 관계를 검증한 바 있다(Ellemers, Van Knippenberg, & Wilke, 1990; Ellemers, Wilke & Van Knippenberg, 199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이론에서 제안한 사회구조 요인들로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예견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즉,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남녀관계의 지위 차이 지각, 안정성, 합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다시 성별사회정체성은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공변량구조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모형에서는 또한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좋은 남성들의 경우에 여성보다 남성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남성으로서 높은 사회정체성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낮아지는 사회정체성을 통한 간접경로와 별도로, 집단의 지위지각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직접경로를 설정했다. 앞에서 설명한 변인들간의 상호영향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론에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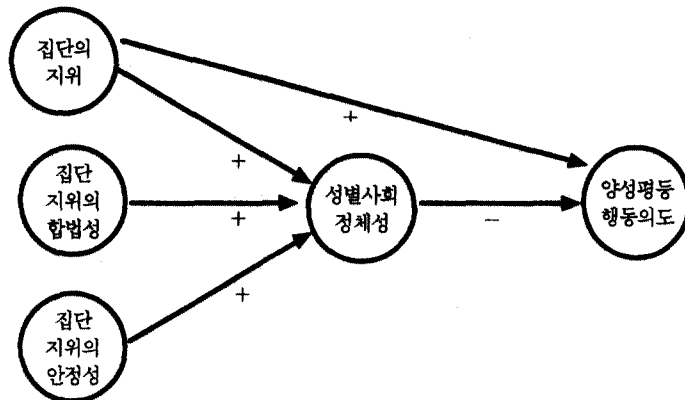


그림 1. 성별집단간 관계에서 사회구조 변인들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로

표 1. 성별사회정체성 문항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문항	총점-문항 상 관	자기문항 계 거 시 $\alpha$ 계수	요 인 부하량	공통분	
집 단 물 입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R)	0.657	0.766	0.778	0.627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싫다(R)	0.660	0.763	0.748	0.588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R)	0.641	0.770	0.734	0.542
	내가 남성이 아니었다면 행복했을 것이다(R)	0.606	0.776	0.659	0.471
	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가치가 높지 못하다고 느낀다(R)	0.533	0.793	0.587	0.345
	나는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R)	0.380	0.825	0.421	0.208
		고유치 2.80	$\alpha$ 계수 0.819		
집 단 자존심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긍지를 느낀다	0.682	0.769	0.741	0.598
	나는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0.622	0.782	0.691	0.502
	내가 남성이라는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반영해 준다	0.603	0.787	0.663	0.500
	내가 남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겐 중요하다	0.565	0.795	0.627	0.435
	나는 내 자신이 남성답다고 생각한다	0.550	0.798	0.581	0.409
	나는 내 자신이 남성임을 스스로 내세운다	0.492	0.811	0.535	0.305
		고유치 2.78	$\alpha$ 계수 0.812		
집 단 범주화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다	0.570	0.638	0.691	0.514
	나는 남성들을 여성들보다 쉽게 믿는다	0.490	0.664	0.597	0.360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남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	0.503	0.663	0.566	0.370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	0.489	0.665	0.534	0.359
	나와 절친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0.322	0.716	0.415	0.196
	나는 다른 남성들과 연대감을 지니고 있다	0.342	0.707	0.359	0.210
		고유치 2.15	$\alpha$ 계수 0.715		

한 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들을 경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 지위의 효과 :** 집단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 지위의 합법성 효과 :** 집단 지위의 합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 지위의 안정성 효과 :** 집단 지위의 안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4.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의 효과 :**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 수준은 낮을 것이다.

**가설 5.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대한 집단의 지위의 효과 :** 남성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 수준이 높을 것이다.

## 연구방법

### 조사의 대상

전국 6개 지역에 위치한 대학의 남자 대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35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7명(30.57%), 경기 33명(9.43%), 강원 22명(6.29%), 충청 35명(10.00%), 전라 40명(11.43%), 경상 110명(31.43%), 기타 지역 3명(0.86%)에 해당한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10명(60.34%), 2학년 72명(20.69%), 3학년 36명(10.34%), 4학년 30명(8.62%), 무응답 2명(0.70%)이었다.

### 성별사회정체성, 지위, 합법성, 안정성,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측정

**성별사회정체성 :**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국내외 연구들에 포함되었던 문항을 수집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집단심리를 전공한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3인이 각 문항들에 대해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정도를 1(전혀 적절하지 않음)~5(매우 적절함)점 척도에 평정하였다. 이 분석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총 47문항을 추출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내 자신이 남성답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화가 난다', '나는 남성들을 여성들보다 쉽게 믿는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이 문항들 가운데 긍정적 문항은 36문항이었고, 부정적 문항은 11문항이었으며, 무선적으로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에게 각 문항들에 대해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느끼거나 행동하는 바'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지위, 합법성, 안정성,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모

두 7점 척도에 평정하였다(0-전혀 그렇지 않다, 1-거의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 4-약간 그렇다, 5-상당히 그렇다, 6-매우 그렇다).

성별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 구조의 추출 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분의 시초값은 중다 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로 추정하였다.

요인의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하여 직교회전(varimax) 방법을 이용하여 회전하였다. 기초 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요인부하량이 .30이하인 문항이나 두 요인 이상에 부하된 문항을 제외하고, 해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총 18개의

표 2. 지위, 합법성, 안정성 문항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구 성 개 념 및 문 항	총점- 문항상관	자기문항 제 거 시 $\alpha$ 계수	요 인 부하량	공통분
<b>집단의 지위</b>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	0.661	0.798	0.767	0.588
현재 사회상황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지배적 세력을 지닌다	0.650	0.799	0.763	0.582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주도권을 지닌다	0.633	0.803	0.730	0.533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실제로 지위가 나쁘다(R)	0.522	0.810	0.564	0.318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다(R)	0.540	0.808	0.560	0.314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가족법상에서 지위가 월등하다	0.496	0.811	0.530	0.281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0.483	0.813	0.526	0.276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나쁘다(R)	0.369	0.823	0.397	0.157
법적으로 보면 현재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종속되는 세력 관계에 처해 있다(R)	0.363	0.824	0.387	0.150
현재 사회상황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좌지우지한다	0.486	0.812	0.550	0.302
현재 여성들이 남성들의 운명에 대해 지니는 영향력이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 지니는 영향력보다 더 강하다	0.396	0.824	0.434	0.188
		<b>고유치 3.69</b>	<b><math>\alpha</math>계수 0.826</b>	
<b>집단 지위의 합법성</b>				
직장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낮은 지위에 머무르는 것은 당연하다	0.638	0.649	0.763	0.582
가정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0.628	0.661	0.750	0.563
여성도 남성만큼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다(R)	0.557	0.695	0.652	0.425
현재 남녀간 지위 관계는 여성과 남성의 행동과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0.417	0.762	0.490	0.240
		<b>고유치 1.81</b>	<b><math>\alpha</math>계수 0.754</b>	
<b>집단 지위의 안정성</b>				
현재 남성과 여성의 지위 관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0.571	0.572	0.750	0.563
지금과 같은 남성과 여성의 세력 관계가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0.542	0.602	0.698	0.487
현재 남성과 여성의 세력 관계는 노력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다고 본다(R)	0.477	0.686	0.576	0.331
		<b>고유치 2.06</b>	<b><math>\alpha</math>계수 0.764</b>	



문항을 선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86%를 설명하였는데 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내집단의 성원으로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지닌 문항들도 이 요인에 속하였다. 따라서 Ellemers 등(1999)과 일관되게 ‘집단몰입’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2였다. 이 요인은 역전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단몰입의 점수가 클수록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 2요인의 문항들은 전체적으로 내집단에 대한 긍지, 내집단에 대한 의미 부여, 중요성 지각 등으로 집단 소속에 관련된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집단지존심’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제 3요인은 내집단의 성원들과 계속 함께 활동하고 싶은 정도, 외집단 성원들에 비하여 내집단 성원들을 쉽게 믿음, 남성집단에 대한 애착 등 집단에 대한 동일시(identification)를 나타낸다. 따라서 ‘집단범주화’로 명명하였고, Ellemers 등(1999)의 자기범주화 요인과 내용이 일관된다. 이 요인의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alpha$ )는 .72였다.

**지위** : 지위와 관련한 11개 문항은 Tajfel(1986, 19쪽)이 지위를 평가의 비교 차원에서 집단의 상대적 위치로 정의하거나 Jones(1972, 117쪽 : Sachdev & Bourhis, 1987에서 재인용)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한 바를 반영하는 문항들을 제

작하고 Mummendey(1996)가 사용한 지위를 측정하는 문항들도 참조했다. 문항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집단 지위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 지위의 신뢰도 계수는 .83이었고,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한 개였으며 고유치는 2.80이었다.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 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지위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합법성** : 합법성은 집단의 현재 지위에 대한 정당성 지각(Ellemers, 1993)으로 정의하였다.

합법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집단의 지위의 합법성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의 지위의 합법성을 이루는 문항들의 신뢰도계수는 .75였고,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은 한 개였고, 고유치는 1.81이었으며, 모든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한 요인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 지위의 합법성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정성** : 안정성은 집단간 지위관계에서 현재와 다른 지위구조가 고려될 수 없는 정도로 정의하였다(Ellemers, 1993).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었

표 3. 양성평등 행동의도 문항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문	항	총 점- 문항상관	자기문항 계 거 시 $\alpha$ 계수	요 인 부하량	공통분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취업 기회를 누리도록 정책이 변화 되어야 한다		0.539	0.664	0.692	0.479
나는 기업에서 같은 경력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주장하는 편이다		0.478	0.671	0.642	0.413
남성보다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늘리도록 정부와 투쟁해야 한다		0.408	0.685	0.504	0.254
아버지도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0.410	0.684	0.440	0.194
조상에 제사를 지내는 책임이 아들에게 있으므로 아들을 낳는 편이 낫다(R)		0.389	0.689	0.432	0.186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0.302	0.705	0.382	0.146
자녀가 부모 중 누구의 성씨도 따를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		0.316	0.713	0.338	0.114
여성과 남성대졸자의 초임이 동등해지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업체에게 촉구하는 대회가 있다면 참여하겠다		0.477	0.670	0.581	0.338
		고유치 2.13		$\alpha$ 계수 0.714	

표 4. 측정변인들간의 상관행렬

	Mean	SD	지 위	합 법 성	안 정 성	성 별 사회정체성	양성평등 행동의도
지위	4.04	0.60	-				
합법성	1.91	0.97	-0.114*	-			
안정성	2.57	0.95	0.105*	0.148**	-		
성별사회정체성	3.89	0.56	0.283***	0.274***	0.152**	-	
양성평등 행동의도	3.93	0.80	0.100+	-0.639***	-0.205***	-0.239***	-

주.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다. 이 요인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로 측정하였다. 이 결과도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집단의 지위의 안정성의 신뢰도계수는 .76이었고,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한 개였으며, 고유치는 2.06이었다.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 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집단 지위의 안정성은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양성평등 행동의도**: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문항들이 대부분 양성평등에 관한 태도 가운데 행동 및 행동의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 행동의도'로 정의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이 문항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면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다고 보았다.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구성개념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도계수를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  $\alpha$ )로 측정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신뢰도계수는 .71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도 한 개였으며, 고유치는 2.13이었다. 한 요인으로 보았을 때 모든 문항에 요인 부하량이 높아서 일요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양성평등 행동의도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뢰로운 측정치임을 알 수 있었다.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AS 8.01과 LISREL 8.12를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사회정체성의 요인구조를 확인하

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구성개념들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변인들의 일개념성을 확인하였다.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들과 이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결과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공변량구조분석을 이용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변수들이 다변량정상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보다 최소자승법에서 정상분포를 가정하는 GL(generalized least square method)법을 사용하였다. GL법은 정상분포에 가정을 두는 가중치 부여 방법으로서 측정변수들이 다변량정상분포의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 GL법을 사용할 수 있다. 모형의 부합도는 다변량정상분포의 위반에 영향을 덜 받는 일반부합치(GFI), 조정부합치(AGFI), 비표준부합치(NNFI), 표준부합치(NFI), 원소간 근접오차 (RMSEA)와 비교합치도(CFI)가 함께 사용되었다. 분석의 자료로는 공변량행렬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각 변인 측정치들의 관계

**구성개념들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얻은 단순상관계수들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치들간 상관들이  $r = -.639$ 에서 .274까지 범위를 보인다. 가설에서 제시한 관계별로 보면 성별사회정체성의 선행요인인 지위( $r =$

.283), 합법성( $r=.274$ ), 안정성( $r=.152$ )이 높을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다. 또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 행동의도간의 관계를 보면 남성들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남녀평등행동의 의도가 낮아서 부정적으로 유의( $r=-.239$ )하였다. 집단의 지위와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관계는 유의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쳤다,  $r=.100$ , *n.s.*

**회귀 분석 :** ①지위, 합법성, 및 안정성과 성별사회정체성 : 다음으로 사회구조 변인들이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지위, 합법성 및 안정성은 성별사회정체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므로 성별사회정체성에 대한 집단의 지위(가설 1), 합법성(가설 2)이 지지되었다. 즉, 지위가 높고, 자신의 현재 지위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남성이라는 점에 대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졌다. 지위와 합법성이 동시에 성별사회정체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18.03%였다. 2개의 예측변인들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은 지위( $\beta=.093$ ,  $p<.001$ ), 합법성( $\beta=.085$ ,  $p<.001$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는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지위, 합법성, 안정성에 의한 성별사회정체성의 중다예언

변 수	df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표준회귀계수( $\beta$ )
지 위	1	0.287	0.046	6.27***	0.093
합법성	1	0.172	0.029	6.00***	0.085
안정성	1	0.044	0.029	1.52	0.005

주. \*\*\* $p<.001$

② 사회구조요인들과 성별사회정체성에 의한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중다예언 :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지위가 성별사회정체성을 경유하는 경로와 지위의 직접 경로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는 성별사회정체성, 지위, 그리고 두 효과의 상호작용이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예측하는데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서 남성들의 성별사회정체성

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낮았다. 또한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주효과는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되므로 두 효과가 상호작용하여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성별사회정체성, 지위, 그리고 상호작용의 세 항들이 전반적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11.22%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항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대적 중요성은 성별사회정체성( $\beta=.033$ ,  $p<.001$ ), 성별사회정체성\*지위( $\beta=.025$ ,  $p<.01$ ), 지위( $\beta=.012$ ,  $p<.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사회정체성과 지위에 의한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중다예언

변 수	df	회귀계수(b)	표준오차	t값	표준회귀계수( $\beta$ )
성별사회정체성(A)	1	-1.035	0.473	-2.19*	0.033
지위(B)	1	1.590	0.440	3.62***	0.012
A*B	1	-0.347	0.112	-3.10**	0.025

주. \* $p<.05$ , \*\* $p<.01$ , \*\*\* $p<.001$

성별사회정체성과 지위의 상호작용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사회정체성 점수와 지위점수의 평균(성별사회정체성 4.03; 지위 3.89)을 기준으로 각각 2등분하여 각 조건에서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 결과는 표 7과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결과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은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에 비교하여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가장 높았다. 다시 말해서 남성들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을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다른 조건들보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려는 행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에 따른 양성평등 행동의도

	성별사회정체성			
	고 평균(표준편차)	저 평균(표준편차)	전 체 평균(표준편차)	
지위	고	3.74(0.90)	4.19(0.78)	3.98(0.86)
	저	3.83(0.69)	3.86(0.69)	3.85(0.69)
전 체	3.77(0.85)	4.03(0.75)	3.93(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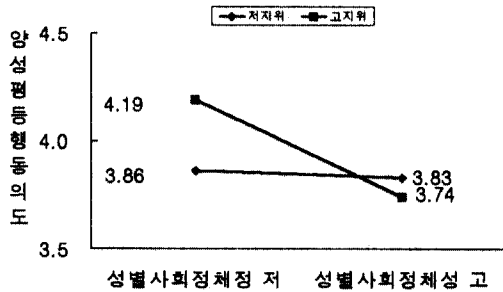


그림 2. 지위와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공변량구조모형의 검증

가설에서 제시된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에 앞서서 자료가 공변량구조모형의 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종속변인으로 보고 나머지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 잔여분산(tolerance)은 .696~.997로 1에 가까웠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1.003~1.441로서 기준인 10보다 매우 낮았다. 따라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에서 제시된 구성개념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공변량구조 모형이 오차항을 포함하여 변인들간의 상호영향력까지 측정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설에서 설정하였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안정성이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경로를 공변량구조 모형에 포함시켰다.

공변량구조 분석의 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집단의 지위, 집단 지위의 합법성, 집단지위의 안정성이 높다고 볼수록 남성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고,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낮아졌다. 또한 남성으로서 집단의 지위가 높다고 볼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아서 가설에서 설정한 경로들이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가설에서 제시한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NFI는 .915, NNFI는 .952, RMSEA는

.04, CFI는 .956으로 거의 모든 부합도 지수가 .90을 넘고, GFI와 AGFI가 .90에 가까우며 RMSEA가 .05에 못 미쳐서 자료가 가설에 부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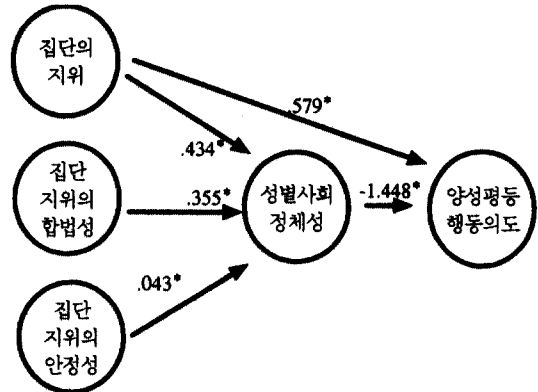


그림 3. 남성의 지위, 안정성, 합법성, 성별사회정체성과 양성평등 행동의도의 공변량구조모형(외생변인간 상관은 모형에 표시하지 않았음)

표 8. 가설로 설정한 공변량구조모형의 부합도 지수

	$\chi^2$	NFI	NNFI	GFI	AGFI	RMSEA	CFI
모형	670(df=343)	.915	.952	.877	.854	.04	.956

이 연구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할수록, 남성의 상대적인 지위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남성의 지위가 장래에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남성으로 생각하는 성별사회정체성의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을수록 남 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행동의도는 낮았다. 또한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높다고 지각하는 남성일수록 남 녀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의도가 높았다. 최종적으로, 잠재변인들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1, 2, 3, 4, 5로 인과 관계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부합도 지수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부적인 사회정체성을 관리하는 전략에 초점을 두어서 열등한 지위 집단을 대

상으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정체성이론의 적용범위를 넓혀서 한국 사회에서 고지위 집단에 해당하는 남성들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조건을 알아낸 결과를 얻었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들 가운데 남성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전체에서 가운데 90.88%였다. 이 인식에는 여성들도 유사해서 여성의 약 92.92%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는 인식을 보였다(김금미, 2001). 따라서 남성이나 여성들 가운데 90% 이상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 때 남성들의 경우에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행동이 특정한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정체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성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지고, 남성으로서 사회정체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남성들의 양성평등 행동의도는 낮아진다. 그러나 남성으로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지 않을 때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낮다는 인식만 높으면, 남성으로서 사회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이 양성평등의 행동의도를 보인 조건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면서 남성으로서 사회정체화한 수준이 낮은 조건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 가운데 남성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높다는 가설과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으면 양성평등 행동의도가 낮다고 예언한 가설이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만약 집단의 지위가 높다고 지각하더라도 그 지위에 관하여 합법성이 있다고 지각할 때만 사회정체성이 높다면, 지위가 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위의 합법성에 의해 한정되므로 조건이 세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집단의 지위와 합법성이 상호작용하여 성별사회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추가하여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에서 남성 지위의 지각에 의해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아지는 조건은 다른

조건들(저지위 고험법성 평균 3.79, 고지위 저합법성 평균 3.83, 저지위 저합법성 평균 3.82)보다 남성의 우월한 지위가 형성된 과정이 합법적이라고 지각한 경우(평균=4.24)였다( $\beta=.0602$ ,  $p<.05$ ). 다시 말해서 남성의 지위와 합법성의 지각이 모두 높은 조건에서 남성의 성별사회정체성이 높았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합법성이 다른 독립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이 결과는 현실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도나 사회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처한 남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남성들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90%의 대다수가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행동의 의도도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여성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으면 자신을 남성으로 동일시하고 긍정적 자존심을 경험하는 수준도 높았다. 특히 남성의 지위가 여성보다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을 남성으로 성별사회정체화하는 수준이 높으면, 남성들의 우월한 지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양성평등행동을 지양하고, 남성의 유리한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방어적 행동 전략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 지위와 지위 합법성의 관계를 추가하여 정리해 보자. 상대적 지위가 높은 남성들의 경우에, 집단의 상대적 고지위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지각하고 남성으로서 사회정체성이 높아지면 양성평등의식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고지위에 대해 합법성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남성으로서 성별사회정체성이 낮을 때 양성평등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남녀의 범주를 강조함으로써 남성에게 성별사회정체성을 높이는 전략보다는 여러 유형의 불평등한 집단간 차별을 철폐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부당함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남성의 양성평등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연구의 과제** :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 요인들 가운데 집단의 지위, 합법성, 그리고 안정성을 다루었다. 그밖에 침투가능성(Ellemers et

al., 1993; Jackson, Sullivan, Harnish, & Hodge, 1996; Lalonde & Silverman, 1994; Wright, Taylor & Moghaddam, 1990)과 집단 정체성의 특출성(Kelly, 1993; Lalonde & Silverman, 1994; Ellemers, Spears, & Doosje, 1997, 연구 2)이 사회정체성과 아울러 사회정체성의 관리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차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양성관계에서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모형의 일반성을 높여려면 여성들의 양성의 동등추구행동의도 역시 이 이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서론에서 내집단의 지위에 따른 전략의 선택과정을 다룬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Ellemers 등(1999)과 같이 지위가 동일시의 평가요소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정서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Jackson과 Smith(1999)는 사회정체성을 포함하는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사회정체성의 요인이 정립되지 않은 점이 한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금미와 한덕용(2001)은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성별사회정체성의 3요인-집단범주화, 집단자존심, 및 집단몰입-으로 구성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에서 여성의 차별지각과 남녀동등추구의 관계에서 성별사회정체성의 세 요인들 가운데 정서요인에 해당하는 집단몰입이 이 관계를 조절하고, 인지요인에 해당하는 집단범주화는 부분매개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다(김금미·한영석,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남성을 다룬 결과와 달리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면 성별사회정체성의 구성요소들에 따라라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지 장차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장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양성 동등성을 추구하는 행동의도에서 남성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녀간의 집단간 관계에서 남녀 성원들의 집합 행동에 사회정체성 이론과 아울러 상대박탈이론들에서 개발된 개념들을 적용하면 남녀차별이나 양성의 동등추구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ummendey 등(1999b)은 서독인에 대한 동독인의 심리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정체성이론과 상대박탈이론의 접맥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역간에 경험

하는 감정에 관하여 상대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의 통합이 시도된 바 있다(박근석·한덕용, 2002). 장차 남성과 비교해서 상대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대박탈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을 통합한 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이 때 Kawakami와 Dion(1993, 1995)의 모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정체성이 높아지면 개인적 상대박탈감이 생기고, 집단정체성이 높아지면 집단적 상대박탈감이 높아지는 지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남자대학생은 장년 이상의 세대와 달리 남녀평등 행동의도가 높은 계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체에서 여성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체 남성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장래에는 대학생 이외에 여러 세대의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인과모형에 대해서 교차타당화를 하지 못하여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장차 교차타당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금미 (2001). 집단의 사회정체성과 지위에 따른 내집단편애-성별집단과 최소집단에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금미·한덕용 (2001). 여성의 성별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여성, 6(2), 15-38.
- 김금미·한덕용 (2002a). 집단간 지위, 성별사회정체성 및 지위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6(3), 1-15.
- 김금미·한덕용 (2002b). 집단의 지위, 집단범주화 및 지위 관련성이 집단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6(2), 15-28.
- 김금미·한영석 (2002). 차별지각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여성의 남녀동등추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7(2), 1-15.
- 김득란 (1992). 양성적 남녀의 성역할 반응양식과 관련된 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근석 · 한덕용 (2002). 영호남인의 상대박탈에서 사회 구조요인과 사회정체성의 영향.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4-253.
- 정진경 (1990). 한국성역할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91.
- 한덕용 (1994). 한국의 사회문제에 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1), 20-53.
- 한덕용 (1995).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 집단간 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0(1), 39-84.
- 한덕용 (2002). 집단행동이론. 시그마프레스
- 한덕용 · 강혜자 (2000).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 1994년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2), 17-38.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n (Eds.), *Action control :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11-39). New York : Springer-Verlag.
- Blanz, M., Mummendey, A., Mielke, R., & Klink, A. (1998). Responding to negative social identity : a taxonomy of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697-729.
- Ellemers, N. (1993). The influence of socio-structural variables on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pp. 27-57)*. Chichester : Wiley.
- Ellemers, N., Doosje, B., Van Knippenberg, A., & Wilke, H. (1992). Status protection in high status minority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23-140.
- Ellemers, N., Kortekaas, P., & Ouwerkerk, J. W. (1999). Self-categoriz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nd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371-389.
- Ellemers, N., Spears, R., & Doosje, B. (1997). Sticking together or falling apart : In-group identification as a psychological determinant of group commitment versus individual mo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3), 617-626.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 Wilke, J. (1990). The influence of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on strategies of individual mobility and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33-246.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identity 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66-778.
- Jackson, J. W., & Smith, E. R. (1999). Conceptualizing social identity : A new framework and evidence for the impact of different dimensions.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1), 120-145.
- Jackson, L. A., Sullivan, L. A., Harnish, R., & Hodge, C. N. (1996). Achieving positive social identity : Social mobility, social creativity, and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41-254.
- Karasawa, M. (1991). Toward and assessment of social identity : The structure of group identification and its effects on ingroup evalu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 293-307.
- Kawakami, K., & Dion, K. L. (1993). The impact of salient self-identities on relative deprivation and action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525-540.
- Kawakami, K., & Dion, K. L. (1995). Social identity and affect as determinants of collective action : Toward and integration of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identity theories. *Theory & Psychology*, 5(4), 551-577.
- Kelly, C. (1993). Group identification, intergroup perceptions and collective action. In W. Stoebe, &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4, pp.59-83)*. Chichester : Wiley.
- Lalonde, R. N., & Silverman, R. A. (1994). Behavioral

- preferences in response to social injustice : The effects of group permeability and social identity sal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1), 78-85.
- Mullen, B., Brown, R., & Smith, C. (1992). Ingroup bias as a function of salience, relevance, and status : An integr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03-122.
- Mummendey, A., Kessler, T., Klink, A., & Mielke, R. (1999a). Strategies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 Predictions by social identity theory and relative depriv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2), 229-245.
- Mummendey, A., Klink, A., Mielke, R., Wenzel, M., & Blanz, M. (1999b). Soci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group relations and identity management strategies : Results from a field study in East German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59-285.
- Mummendey, A., Mielke, R., Wenzel, M., & Kanning, U. P. (1996). Social identity of East Germans : The process of unific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as a challenge to cope with 'negative social identity'. In G. Breakwell, & Breakwell, & E. Lyons(Eds), *Changing European identities : Social psychological analyses of social change*(pp. 405-428).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Reichl, A., J. (1997). Ingroup favouritism and outgroup favouritism in low status minimal groups : Differential responses to status-related and status-unrelated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 617-633.
- Sachdev, I., & Bourhis, R. Y. (1987). Status differentials and intergroup behaviou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277-293.
- Sachdev, I., & Bourhis, R. Y. (1991). Power and status differentials in minority and majority group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24.
- Tajfel, H. (1982).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7-24). Chicago : Nelson-Hall.
- Taylor, D. M., & Moghaddam, F. M. (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 Praeger.
- Wright, S. C., Taylor, D. M., & Moghaddam, F. M. (1990). Responding to Membership in a Disadvantaged Group : From Acceptance to Collective Pro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994-1003



## **Effects of group status, legitimacy, stability of men on Gender Social Identity and Gender Equality action**

**Keum-mi Kim, Doug-Woong Hahn and Young-seok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that include the effects of group status, legitimacy, and stability of men on gender social identity, and gender equality action. In order to test the fitness of this model and each detailed path,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350male. The results revealed that this model was well-fitted to the data. Among the specific examinations of the relationship, most of the hypotheses were confirme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effect of group status and legitimacy, gender social identity increased. And along with the increase of the gender social identity, gender equality action increased, too. This result shows usability of social identity theory in male-female inter-group relationship. The significanc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opics to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 words : social identity theory, gender social status, legitimacy, stability, gender social identity, gender equality action**